

승부처된 중추신경계 시장… K-제약, 혈뇌장벽 연구 활발

혈뇌장벽, CNS 치료제 핵심 난제
올릭스, BBB 셔틀 기술평가 체결
콘테라파마, 룬드벡과 개발 협력

에이비엘바이오에 이어 올릭스까지
중추신경계(CNS) 질환에 중점을 둔
경쟁에 가세하면서 플랫폼 기술력이 주
목받고 있다. CNS 치료제 개발의 핵심
난제로 꼽히는 혈액뇌장벽(BBB) 연구
개발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11일 국내 제약·바이오 업계에 따르면
올릭스는 지난 10일 스웨덴 소재 바
이오 기업 키투브레인과 CNS 질환 치
료제 개발을 위해 '전달체 기술 평가 및
기술 도입 옵션 계약'을 체결했다.

이번 계약은 혈액뇌장벽(BBB)을 투
과해 CNS 질환을 표적하는 소형간섭R
NA(siRNA)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
목표다. 양사는 키투브레인이 보유한 B
BB 셔틀 기술과 올릭스의 CNS siRN
A 후보물질을 결합한 접합체를 공동으
로 개발한다. CNS 조직 내 약물 전달
효능과 기술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공동
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.

혈액뇌장벽은 유해 물질이 뇌로 유입
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막이지만, CN



K-바이오가 혈액뇌장벽(BBB)을 중심으로 뇌질환 연구에 주력한다. /제미나이 생생 이미지

S 질환 치료제가 작용하는 기전에서는
핵심 장애물로 여겨진다.

키투브레인은 BBB를 구성하는 뇌
모세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트랜스페린
수용체(TfR)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
소형 단일 도메인 항체(VHH)를 활용
한 약물 수송 기전을 연구해 왔다.

이번 계약은 올릭스가 siRNA 기반
CNS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BBB 셔

틀 기술을 주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
전략의 일환이다.

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"CNS 전달 기
술은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한 분야인 만
큼, 키투브레인과 같이 임상 적용 가능
성이 높은 BBB 셔틀 기술을 선제적으
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"고 말했다.

에이비엘바이오도 BBB 투과 기술 '그
랩바디-비'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.

특히 RNA 전문 기업과 협업해 그랩
바디-비와 소형간섭RNA(siRNA) 결
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. 뇌는 물론,
근육, 심장, 폐 등 말초 조직까지 적용
가능한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을 연
구개발해 그랩바디-비 적용증을 확장
할 계획이다.

또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그랩바디-
비에 활용되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1수
용체(IGF1R) 항체에 대한 특허를 획득
했다. 해당 특허는 2020년 6월 국제 출
원된 것으로, 이번 특허 결정으로 2040
년까지 그 권리가 보장된다.

IGF1R은 세포 성장 관련 신호전달
경로에 관여해 다양한 대사와 생리적
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. IGF1R은 다른
조직에 비해 BBB에서 상대적으로 높게
발현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
에이비엘바이오는 이러한 IGF1R 특성
을 응용해 그랩바디-비를 개발했다.

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"그
랩바디-비를 새로운 표적에 적용하고
모달리티를 확장하는 등 연구개발에 박
차를 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비만이나
근육 관련 질환 등에서 그랩바디-비 적
응증을 추가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

아울러 제약 업계는 CNS 자체 신약

에 대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.

부광약품은 자회사 콘테라파마를 통
해 CNS 전략과제 경쟁력을 확대한다.
자체 파이프라인으로는 파킨슨병 환자
대상 아침 무동증 치료제 'CP-012' 임
상1b상에 진입해 있다. 현재 긍정적인
톱라인 결과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임
상2상 진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.

지난해 말에는 콘테라파마와 글로벌
제약사 룬드벡의 의약품 연구개발 협력
계약 체결을 추진했다. 파킨슨병 치료
제 개발 및 RNA 개발 플랫폼 기술력을
입증한 셈이다.

큐라클은 알츠하이머병 신약에 대한
기대감을 높인다. 큐라클의 'CU71'은
뇌혈관내피 기능장애 차단제로, BBB
를 안정화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억제
해 준다.

제약 업계 관계자는 "BBB 자체를 타
깃으로 하거나 기존 약물 기전의 한계
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전에 대한 연구
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질환의 근
본 원인에 대한 접근성이 바탕이 된 것"
이라며 "기존 치료법에 대한 대안에서
한 차원 나아간 연구개발이 진행되고
있다고 볼 수 있다"고 덧붙였다.

/이청하 기자 mlee236@metroseoul.co.kr

광동제약 '침향환' 누적매출 1600억 돌파

재재구매율 99.8% 기록

광동제약은 '광동 침향환'이 2019년
출시 이후 2025년까지 누적매출 1600억
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.

광동 침향환은 침향과 녹용을 주원료
로 한 환 형태 프리미엄 제품이다. 2019
년 첫 선을 보인 이후 꾸준한 품질 관리
와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관련 시장
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왔다. 회사
측에 따르면 광동 침향환의 누적판매량

은 약 2700만환(1박스당 30환 기준)에
달하며, 재재구매율은 99.8%를 기록해
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.

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광동제약은
원료 선별부터 제조 공정까지 전 과정에
걸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꼽았다. 광동
침향환은 침향(16%)과 녹용(10%)을 주
원료로 산삼배양근, 아카시아별꽃, 복
령, 숙지황, 뽕나무뿌리껍질 등 국내산
전통 원료 14가지를 배합해 제조된다.

/이세경 기자

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롯데리아 1호점 오픈

지하 1층 48평 60석 규모
동남아 현지 파트너사 협업

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
롯데리아가 지난 10일 싱가포르 주얼
창이 공항(Jewel Changi Airport)에 1
호점을 오픈하며 동남아 현지 파트너사
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에 힘 쏟고
있다.

그간 롯데리아는 동남아시아국 진출
시 해당국의 수도 내 도심에 1호점을 오
픈으로 브랜드 접점 확대를 통한 시장
확대 전략과 다르게 싱가포르의 입점
지역 및 상권 등의 특수성에 맞춘 전략
에 기반해 1호점 입지를 검토했다.

이에 11일 공식 개점한 롯데리아 싱
가포르 1호점은 싱가포르 창이 국제 공
항과 연결된 전 세계 공항 교통 허브의
특수성과 쇼핑·엔터테인먼트 복합 공간
의 쇼핑몰인 주얼 창이 공항 내 B1층 약



10일 싱가포르 주얼 창이 공항 지하 1층에 위치한 롯데리아 싱가포르 1호점 그랜드 오픈식에서 롯데GRS 이원택 대표이사(오른쪽에서 3번째)와 카트리나그룹 알란 고 회장(오른쪽에서 4번째)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/롯데GRS

관 등이 참석해 오픈을 기념했다.

이날 롯데GRS 이원택 대표이사는
"싱가포르 1호점은 롯데GRS와 카트리
나의 두 그룹이 한국과 싱가포르를 넘
어 글로벌 외식업계로 발전하는 상징이
될 것"이라고 전했다./신원선 기자 tree6834@



지난 9일 서울 강남 소재 동국제약 본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(왼쪽에서 다섯 번째), 송준호
동국제약 대표(왼쪽에서 여섯 번째) 등 주요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/동국제약

동국제약, 지식재산처와 위조품 유통 대응

간담회 열고 제도적 협력방안 논의

동국제약은 지난 9일 서울 강남에 위치
한 본사에서 지식재산처와 함께 더마
코스메틱 브랜드 '센텔리안24'의 위조
품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
담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.

이번 간담회에서 양측 관계자들은 국
내 온라인과 해외 유통 채널을 중심으
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품 유통 실태와
대응 현황을 공유했다.

특히 위조품 문제는 소비자 안전과

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
것에 공감대를 이뤄 위조 상품 단속 및
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적·실무적 협력
방안을 논의했다.

송준호 동국제약 대표는 "지식재산
처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
극적인 협조로 최근 3일간의 집중 단속
기간 동안 온라인상의 위조품이 대다수
사라지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"
며 "지식재산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
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
기대한다"고 말했다.

/이청하 기자

개발 비용 절감하고 임상 기간 단축

셀트리온은 현지시간 9일 유럽의약
품청(EMA)으로부터 코센티스(COSE
NTYX) 바이오시밀러 'CT-P55'의 글
로벌 임상3상에서 등재 환자 수를 축소
하는 임상시험계획(IND) 변경 승인을
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.

셀트리온은 이번 IND 변경 승인을
통해 대상 환자를 기존 375명에서 153
명으로 대폭 조정하게 됐다. 유럽 내 바
이오시밀러 개발 효율화 정책에 따라 E

MA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다.

셀트리온은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동
시에, 환자 모집 수, 등재 환자 수를 줄
여 전체 임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
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최근 EMA와 미국 식품의약국(FDA)
은 효능 동등성 입증을 위한 임상 3
상 시험 면제와 간소화 논의에 속도를
내고 있다. 과학적 근거가 충분할 것으
로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 임상 간소화
가 가능해질 전망이며, 이를 통해 임상
비용과 기간을 줄임으로써 개발 월가

역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현재 셀트리온은 판상형 건선 환자를
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코센티스와
CT-P55 간의 유효성, 안전성 및 동등
성 입증을 위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순조
롭게 진행 중이다.

코센티스는 인터루킨(IL)-17A 억제
제로 강직성 척추염, 건선성 관절염, 중
등증-중증 판상 건선 등에 쓰이는 자가
면역질환 치료제다. 2025년 기준 글로
벌 매출은 약 66억 6800만 달러(9조
3352억 원)에 달하며, 물질특허는 미국
과 유럽에서 각각 2029년 1월, 2030년 7
월 만료될 예정이다.

/이세경 기자 seilee@